

영어구문분석

나병모

"이 저서는 2007 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머리말

매년 겪는 일이지만 개강 첫 날 강의 소개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실망에 찬 표정을 짓거나 수강을 포기하고 만다. 학생의 탓만은 아닌 것을 교수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처음 GB 이론에 근거하여 영어통사론이라는 책을 내놓은 뒤 얼마 안 가서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의 뜻을 좇아 표준이론의 틀 안에서 영어의 구조란 책을 내놓았다. 이 역시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영문학과 학생이 통사론을 공부할 때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대답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문법은 품사론적 측면에서 좋은 문법이지만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변형생성문법은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영문법과 통사론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영어는 수많은 문형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5 형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형식에는 또다른 많은 변이형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분석은 Hornby(1976) 일 것이다. Quirk, et. al (1985) 역시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7 형식의 틀 안에서 영어를 잘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문법은 문법관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문장 성분들의 의미적 역할이나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서에서 제시한 문법은 문장의 구조를 변형문법 (Transformational Grammar)의 수형도로 분석하고, 의미적 기능은 Halliday (1985)의 기능문법 (Functional Grammar)으로 분석하였으며, 문법관계는 학교문법의 개념을 차용하였

다. 1 장부터 4 장까지는 분석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나병모(2001)을 본서의 목적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혹은 대폭 수정하였으며, 4 장부터 7 장까지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구문을 분석하고 있다. 8 장은 구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9 장은 동사군의 어순을 설명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 강의하는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문법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평을 듣고 나서 이 책의 출판을 서두르기로 하였다. 더욱이 최근에 도서출판 동인을 통해 번역 출간된 Culicover와 Jackendoff(2007)의 단순통사론이 의 미론과 통사론이 결합되어야만 언어를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관점과 일치하여 이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먼저 본 연구에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대전대학교에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원고로 수업을 받으면서 인내심을 보여주고, 용기를 북돋이준 제자들에게 감사한다. \TeX 으로 편집하여 출판할 것을 고집하는 저자의 뜻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학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동인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수년동안 이 책의 집필에 매달리느라 보살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하고 싶다.

무자년 정월초사흘

저자

차례

머리말	iii
제 1 장 범주	1
1 품사	3
2 명사	4
제 2 장 조동사	7
1 영어의 시제 체계	7
2 시제	8
3 조동사	10
4 규칙성	14
5 규칙화	16
6 수동태	20
7 의문문과 부정문	22
8 요약	25
부록 A 연습문제	27
부록 B 연습문제해답	29

제 1 장 범주

인간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의 언어는 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진 체계로 다른 기호 체계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등의 경우 색과 의미로 이루어진 체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언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소리와 의미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학(linguistics)은 다루는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음성학(phonetics)과 음운론(phonology)은 소리를 다루며, 형태론(morphology)은 단어의 구조를 다룬다. 의미론(semantics)과 화용론(pragmatics)은 의미를 다룬다. 여기에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될 통사론(syntax)은 문장의 구조를 다룬다. 통사론은 문장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요소들, 즉 구성소(constituent)가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설명한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가 일정한 순서로 나열되어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1) The dog found a cat in the kit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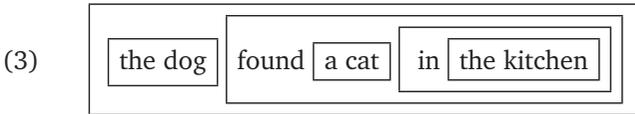
영어를 아는 화자라면 문장 (1)이 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좀 더 큰 단위를 이룬다는 것을 안다.

전통문법에서는 문장 (1)의 결합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2)
- a. 단어 the와 단어 dog이 결합하여 구 the dog을 이룬다.
 - b. 단어 the와 단어 kitchen이 결합하여 구 the kitchen을 이룬다.
 - c. 단어 in과 구 the kitchen이 결합하여 구 in the kitchen을 이룬다.
 - d. 단어 a와 단어 cat이 결합하여 구 a cat을 이룬다.

- e. 단어 found, 구 a cat, 구 in the kitchen 이 결합하여 found a cat in the kitchen 을 이룬다.
- f. 구 the dog, 구 found a cat in the kitchen 이 결합하여 문장 the dog found a cat in the kitchen 을 이룬다.

이를 도식화하면 (3) 이 된다.



(3) 이 비록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결합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각 요소의 품사(parts of speech)¹, 또는 결합된 요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음 예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품사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They are encouraging reports.

위에서 encouraging 이 동사로 쓰였느냐, 혹은 형용사로 쓰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 (5) a. They encourage reports.
- b. Those reports are encouraging.

두 경우 모두 encouraging 이 현재분사이지만 (5a)에서 동사로 쓰여 reports 가 목적어이며, 반면에 (5b)에서는 형용사로 쓰여 reports 를 수식한다. 이처럼 품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종종 중의성(ambiguity) 이 발생하

1) 원래 품사라는 명칭은 그리스어의 meroi logou, 라틴어의 partes orationis 를 오역한 것으로 parts of a sentence 를 뜻한다. 플라톤의 경우 품사를 class 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function 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Halliday 1985: 30). 품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류(word class) 혹은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는데, 품사를 식별하면 그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 품사

전통문법에서는 모든 단어가 8 개의 품사에 속한다고 보는데, 각 품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6) a. 명사는 사람, 장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 b.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 c. 형용사는 명사의 특성을 기술한다.
- d.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을 수식한다.
- e. 전치사는 명사 목적어를 취하여 시간, 장소, 양태 등을 나타낸다.
- f.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다.
- g. 접속사는 둘 이상의 문법 요소를 연결한다.
- h. 감탄사는 감탄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경우에 따라 품사를 뜻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 정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이지 못하다.

영어에서 많은 경우에 명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가 명사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뜻에 기초한 분류법은 문제가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7) a. John was seated at the *top* of the table.
- b. John ran at *top* speed.
- c. He *tops* his English class.

(7)에서 *top*은 각각 명사, 형용사, 동사로 쓰였다. 품사를 뜻에 기초하여 정의할 경우에는 세 경우 모두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품사를 명확히 정의가 쉽지 않다. 위에 제시된 8 품사는 크게 2 개의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내용어(content word)로 명사, 동

사, 형용사, 부사처럼 비교적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위에 제시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외에도 관사, 조동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내용어를 대범주(major category) 또는 개방류(open class)라 하고, 기능어를 소범주(minor category), 또는 폐쇄류(closed class)라 한다.

2 명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어의 품사는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명사의 경우 다른 품사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명사는 형태와 분포, 기능에 있어서 다른 품사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명사는 복수(plural) 굴절어미를 가질 수 있다.²

(8) The cat is chasing after the rat.

위의 예에서 cat과 rat은 복수형을 가질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쓸 수 있다.

(9) The cats are chasing after the rats.

둘째, 명사는 소유격을 가질 수 있다. 명사의 경우 a car's wheel, the dog's ear 처럼 소유격을 가질 수 있지만, 동사는 *danced's, *see's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유격이 불가능하다.³

셋째, 공기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에서 다른 품사와 구별된다. 명사가 a car, the dog과 같이 관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반면, 동사는 *a danced, *a see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여기서 제시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명사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추상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와 같은 비가산명사는 복수형을 갖지 못하지만 소유격이 가능하므로 명사로 분류된다.

3) 별표(asterisk)는 비문법적임을 나타낸다.

넷째, 명사는 다른 품사와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구조주의(structuralism) 문법학자들은 제 1 부류(Class 1)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틀을 제시한다.

(10) Words of Class 1

Frame A: The _____ was good.

concert

food

coffee

Frame B: The _____ remembered the _____.

man

dog

wife

cat

Frame C: The _____ went there.

wife

clerk

위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다.

마지막으로 명사는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명사만이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 보어(complement)로 쓰이는데, 이러한 기능은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noun phrase; NP), 명사절, 동명사(gerund), 명사적으로 쓰인 부정사 등이 있다. 명사적 특성을 공유하는 이러한 범주(category)를 총칭하여 명사류(nominal)라 한다. 다음 예에서 이탤릭체로 된 구가 명사구이며, 대문자로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를 핵(head)이라 한다.

- (11) a. *His radical POSITION on the issue* is not acceptable.
 b. I took *the POSITION that the nuclear test* should be banned.
 c. I am not in *a POSITION to help you*.
 d. What is *the POSITION of affairs*?

위의 예에서 position이 핵인 명사구는 각각 주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position은 모두 명사이다.

제 2 장 조동사

동사는 시제, 서법, 상, 태 등을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주로 동사의 유형을 타동성 (transitivity) 에 따라 분류하고, 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영어에서 동사는 특히 서법, 상, 태를 동사의 굴절형으로 나타내지 않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은 거의 대부분 본동사만을 갖는 문장이었는데, 본장에서는 조동사가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1 영어의 시제 체계

전통적으로 영어가 12 시제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사 write 의 활용형을 살펴보자.

(1) 현재

- a. John writes.
- b. John is writing.
- c. John has written.
- d. John has been writing.

(2) 과거

- a. John wrote.
- b. John was writing.
- c. John had written.
- d. John had been writing.

(3) 미래

- a. John will write.

- b. John will be writing.
- c. John will have written.
- d. John will have been writing.

영어의 기본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행 (progressive) 과 완료 (perfect) 라는 상 (aspect) 과 결합하여 12 시제를 이룬다.

위에서 언급된 형태들은 모두 능동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각각의 형태에 대해 수동형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24 개의 서로 다른 (조) 동사 어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제

조동사의 어순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동사와 본동사의 종류와 활용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에서 동사군 (verb group) 은 시제 (tense), 서법 (mood), 상 (aspect), 태 (voice) 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문법범주 (grammatical category) 를 조동사로 나타낸다.

먼저 시제에 대해 살펴보자. 영어에는 두 개의 시제 즉, 현재 (present) 와 과거 (past) 라는 두 개의 시제가 있다. 흔히 미래시제를 인정하지만 will, be going to, 현재진행형을 통해 미래를 나타낼 뿐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소위 일반동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 (4) a. Sally plays the piano.
- b. Sally played the piano last night.

(4a) 의 plays 는 주어가 3 인칭 단수이며, 현재이기 때문에 쓰인 형태이다. 반면에 (4b) 의 과거형은 인칭이나 수와 무관하게 쓰인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흔히 쓰이는 be 동사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 (5) a. Sally is smart.
- b. Sally was s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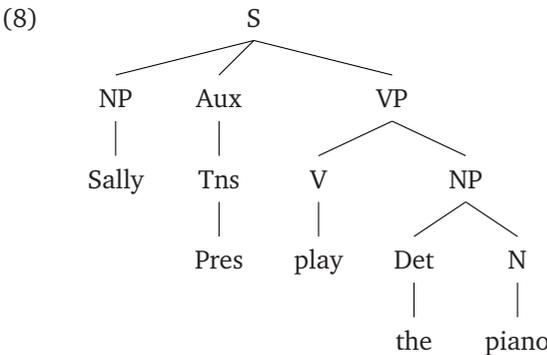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형이나 과거형이 대부분 규칙적이며, 동사가 시제를 나타낸다. 일반동사가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plays와 played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6) a. plays: Pres(ent) + play
- b. played: Past + play

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구조규칙이 필요하다.

- (7) a. Aux → Tns
- b. Tns → $\left\{ \begin{array}{l} \text{Pres} \\ \text{Past} \end{array} \right\}$

이에 따라 (4a)는 다음과 같이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다.



Tns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사를 이끄는 첨사 to 다음에도 원형부정사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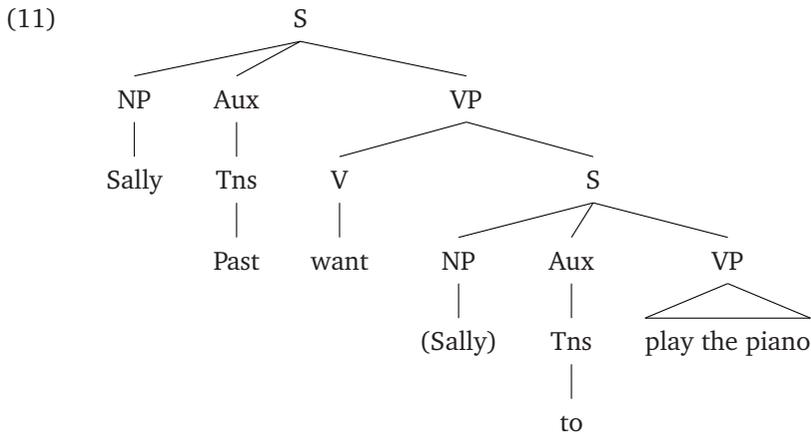
- (9) Sally wanted to play the piano

부정사는 흔히 to를 수반하는데, 앞서 to는 첨사로 Aux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정사는 시제를 갖지 않으며 (9)의 경우 wanted의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to를 Pres나 Past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제

표지어(tense marker)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7b)를 수정하자.

$$(10) \quad \text{Tns}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Pres} \\ \text{Past} \\ \text{to} \end{array} \right\}$$

(9)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조동사

조동사는 서법과 상에 따라 구별해 볼 수 있다.

- (12) 서법
will, would, can, could, shall, should, may, might, must

- (13) 상
- a. 완료상: have, has, had
 - b. 진행상: be, am, are, is, was, were, been

서법조동사(modal auxiliary; M)는 서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조동사와 의미상으로 구별되며, 또한 다른 조동사가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포상 구별된다. must를 제외한 나머지 서법조동사는 다른 조동사나 동사와 마찬가지로 현재형과 과거형을 가지고 있다.

서법조동사 will은 시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will은 소위 단순미래와 의미미래로 구분되며, 특히 단순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미래시제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will의 과거형인 would는 어떤 시제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음 예를 보자.

- (14) 서법조동사 will의 과거형
- a. John would write.
 - b. John would be writing.
 - c. John would have written.
 - d. John would have been writing.

예에서 알 수 있듯이 would는 시제와 무관하게 서법을 나타낸다. 다음 예를 보자.

- (15) a.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please.
b. Do you think that John would fix the sink tomorrow?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 would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를 나타낸다.

사실 will의 경우에도 현재를 나타내거나 미래를 나타내어, 서법조동사가 모두 시제와 무관하게 쓰인다. 따라서 will과 would, shall과 should, may와 might, can과 could 등의 대조는 단지 형태상의 구별일 뿐 시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서법조동사는 상을 나타내는 have나 be와 구별되는데, 상조동사는 분사(participle)를 취하는 반면 서법조동사는 원형부정사를 취한다. 이러한 특성은 부정사의 to와 같은 성격이다. 즉, 서법조동사는 시제나 부정사의 to와 상보분포를 보이며,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은 구구조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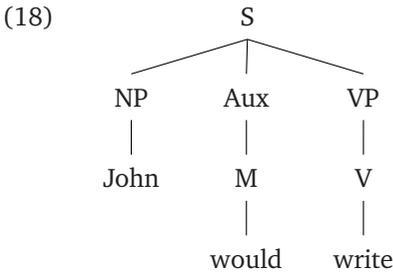
- (16) a. $S \rightarrow NP \text{ Aux } VP$

$$b. \text{ Aux}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Tns} \\ \text{M} \end{array} \right\}$$

즉, Aux 는 시제를 나타내는 Tns, 혹은 서법조동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장을 살펴보자.

(17) John would write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상을 나타내는 준조동사 be와 have 는 상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시제의 의미도 나타내므로 다른 분석이 필요하다. be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다음과 같이 be 와 접사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9) a. am/are/is: Pres + be
- b. was/were: Past + be

서법조동사의 경우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오지만 진행상을 나타내는 be 의 경우 그 다음에 현재분사가 나타난다.

(20) John was writing.

완료상을 나타내는 have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 (21) a. has: Pres + have

b. had: Past + have

마지막으로 일반동사의 경우를 보자. 다음은 write 의 활용형이다.

(22) 일반동사

write, writes, wrote, written, writing

일반동사의 경우 형태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3) a. writes: Pres + write

b. wrote: Past + write

c. written: write + en

d. writing: write + ing

물론 Pres + write 가 항상 writes 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주어가 3 인칭 단수일 때 writes 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따라 동사군(verbal group)을 분석해보자. 먼저 가장 간단한 경우는 본동사만 나타나는 것이다.

(24) a. John wrote.

b. John Past + write

다음 예는 완료상과 진행상이다.

(25) a. John has written.

b. John Pres + have write + en

(26) a. John was writing.

b. John Past + be write + ing

다음 예는 좀 더 복잡한 경우이다.

(27) a. John has been writing.

- b. John Pres + have be + en write + ing
- (28)
- a. John would have been writing.
 - b. John would have be + en write + ing

4 규칙성

동사군에 대한 논의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동사가 일정한 순서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비와 같이 위에 나열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의 어순은 허용되지 않는다.

- (29)
- a. *John has wrote.
 - b. *John has will write.
 - c. *John has writing.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동사 has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과거분사뿐이다. 실제로 가능한 조동사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Culicover 1982: 54).

- (30) 가능한 동사군
- a. V (단순시제)
 - b. have V (완료)
 - c. be V (진행)
 - d. have be V (완료진행)
 - e. M V (단순시제)
 - f. M have V (완료)
 - g. M be V (진행)
 - h. M have be V (완료진행)

이러한 규칙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 (31) 동사군의 어순은 서법조동사, have, be, V이며, V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V는 VP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구구조규칙에 의해 도입된다.

(32) $VP \rightarrow V (NP)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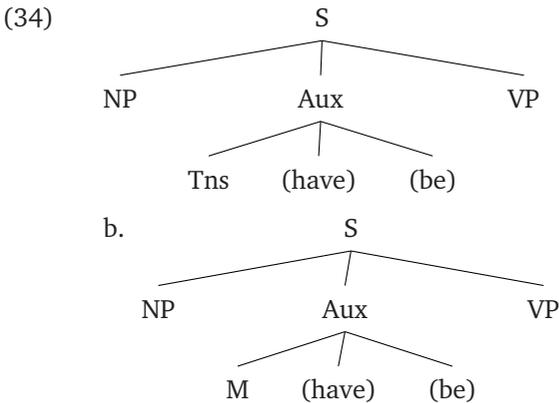
V는 VP의 핵(head)이므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조동사는 사실 어느 것도 의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핵이 되지 못하는 못하며, 오직 Tns만이 의무적으로 나타난다. 조동사의 어순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구구조규칙이 필요하다.

(33) $Aux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ns \\ M \end{array} \right\} (have) (be)$

위의 구구조규칙은 조동사의 경우 모두 선택적이며, 그 순서가 서법조동사, 완료의 have, 진행의 be라는 것을 나타낸다.

(33)을 수행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규칙화

(33)은 접사인 Tns, en, ing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접사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 | | | | | | |
|------|----|------------|----------|---------|---------|
| (35) | a. | | | V + Tns | |
| | b. | have + Tns | | V + en | |
| | c. | | be + Tns | V + ing | |
| | d. | have + Tns | be + en | V + ing | |
| | e. | M | | V | |
| | f. | M | have | V + en | |
| | g. | M | be | V + en | |
| | h. | M | have | be + en | V + ing |

(35)로부터 쉽게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시제인 Tns 혹은 M은 반드시 나타나며, 완료의 have는 -en형을 수반하고, 진행의 be는 -ing형을 수반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구조규칙을 설정하자.

$$(36) \quad \text{Aux}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Tns} \\ \text{M} \end{array} \right\} (\text{have en}) (\text{be ing})$$

위의 규칙에서 예를 들어 (have en)은 have와 en이 반드시 함께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be ing)는 be와 ing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위의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다.

- | | | |
|------|----|--------------------------------|
| (37) | a. | Aux → ... have ... be + en ... |
| | b. | Aux → ... have ... V + en |
| | c. | Aux → ... be ... V + ing |

즉, en은 be와 함께 나타나거나 V와 함께 나타나며, ing는 V와 함께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접사 en과 ing는 조동사 have와 be에 의해 도입되지만, en은 be나 V, ing는 V와 함께 형태론적으로 실현(realize)된다는 것이다.

일반화하자면 접사인 Pres, Past, en, ing는 다음에 오는 have, be, V 뒤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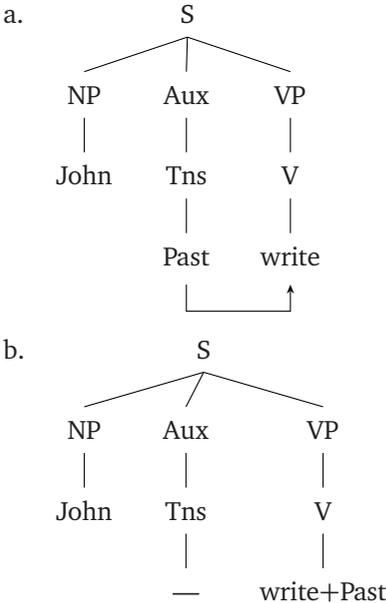
(38) 접사뛰기

접사인 Tns, en, ing는 바로 다음에 오는 Aux나 V와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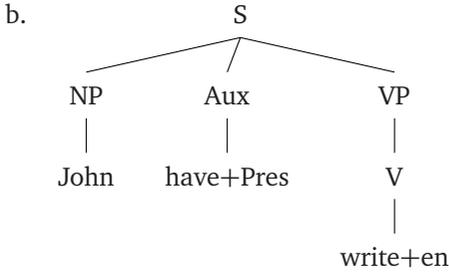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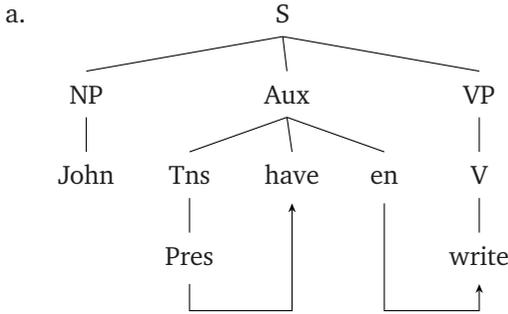
위의 접사뛰기(Affix Hopping)는 지금까지 논의한 동사군의 순서를 설명하는데 충분하다.

간단한 몇 개의 예를 통해 접사뛰기를 적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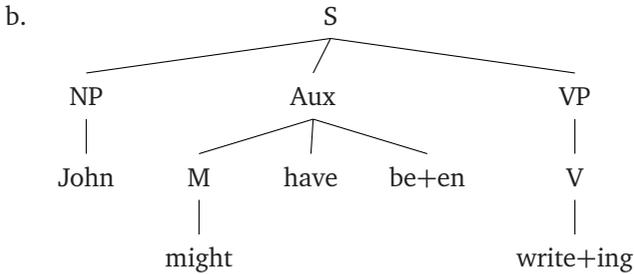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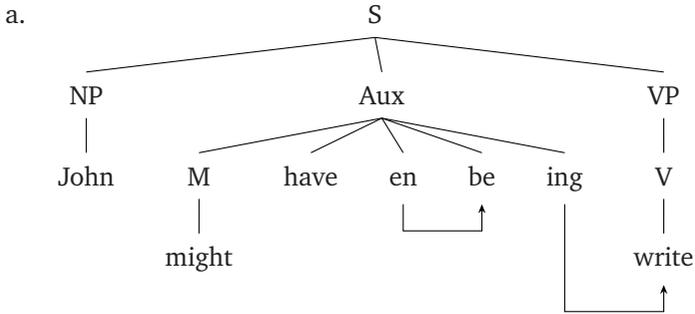
(39) John wrote.



(40) John has writ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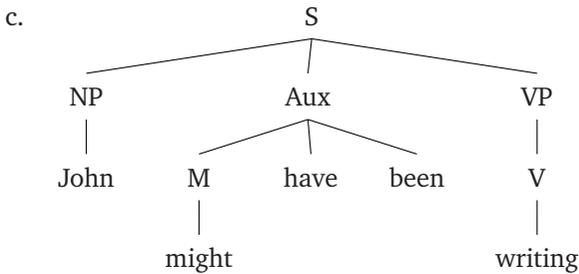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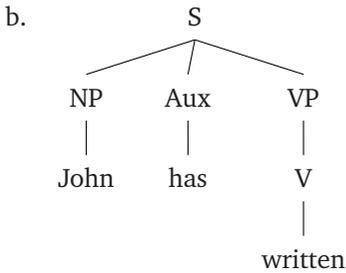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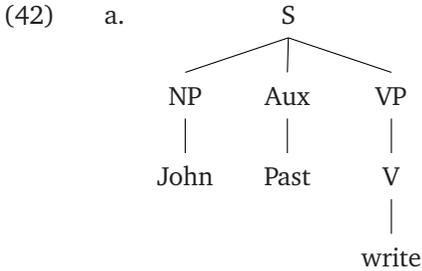


(41) John might have been writing.



위 수형도에서 남은 과정은 have와 Past를 결합하여 has로, 그리고 write와 en을 결합하여 written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설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내자.



즉, 문장을 수형도로 나타낼 때 접사가 이동된 위의 구조로 나타내고, 다만 본동사의 경우에는 시제가 이동하여 본동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자. 다시 말해 본동사의 경우에는 Tns의 Pres나 Past가 접사 이동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조동사와 그 접사는 접사가 이미 이동된 형태로 나타내자.

예를 들어 (42c)를 기능적으로 분석해 보자. 조동사의 경우 might는 서법, have는 완료상(perfect), been은 진행상(progressive)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43)

John	might	have	been	writing
S	M			V
Actor	Modality			Process
	Mood	Perfect	Progres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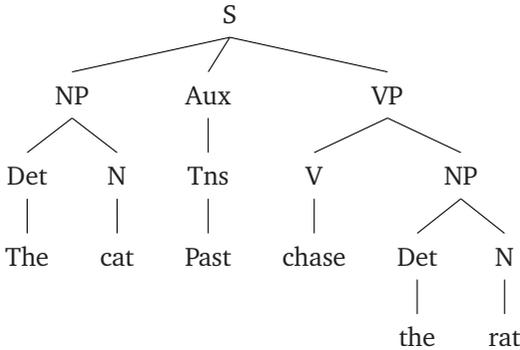
6 수동태

조동사의 어순과 관련지어 언급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수동태의 be와 과거분사이다. 다음 두 문장은 의미상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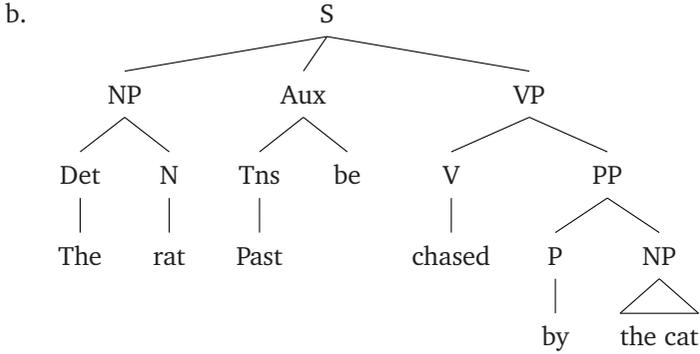
- (44) a. The cat chased the rat.
- b. The rat was chased by the cat.

위의 두 문장은 우리의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5) a.



The cat	Past	chase	the rabbit
S	M	V	O
Actor	Modality	Process	Goal



The rat	Past	be	chased	by the cat
S	M		V	Adjunct
Goal	Modality		Process	Actor
	Finite	Pas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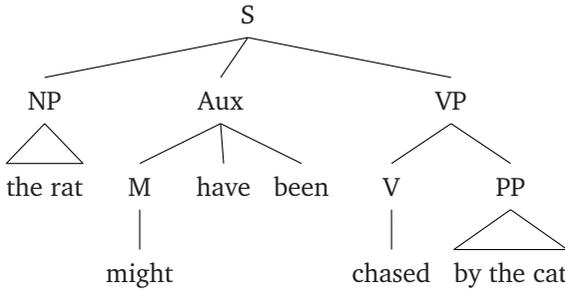
(44b)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동태 문장은 be와 함께 본동사의 과거분사형이 따른다. 또한 행위자 주어는 by구로 나타나며,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는 주어 자리에 나타난다. 물론 by구는 행위자를 나타내며, 문장 성분은 부가어로 생략이 가능하다.

좀더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 (46) a. The cat might have chased the rat.
- b. The rat might have been chased by the cat.

관심의 대상인 (46b)를 분석해보자.

(47)



The rat	might	have	been	chased	by the cat
S	M			V	Adjunct
Goal	Modality			Process	Actor
	Mood	Perfect	Passive		

수동태도 포함하도록 Aux의 구구조규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48) \quad \text{Aux} \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Tns} \\ \text{M} \end{array} \right\} (\text{have en}) (\text{be ing}) (\text{be en})$$

물론 두 개의 be 동사 가운데 앞의 be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의 be는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en은 모두 과거분사를 의미하지만, 뒤의 en은 수동분사(passive participle)로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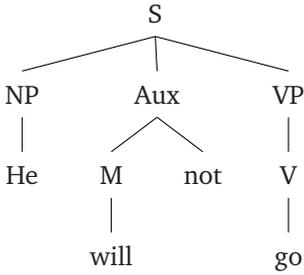
7 의문문과 부정문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동사는 do이다. have나 be와 마찬가지로 do는 본동사 뿐만 아니라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다른 조동사가 없을 때는 조동사로 쓰인다. 먼저 부정문을 살펴보자.

- (49) a. He will not go.
 b. He does not go.

(49a) 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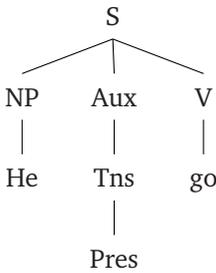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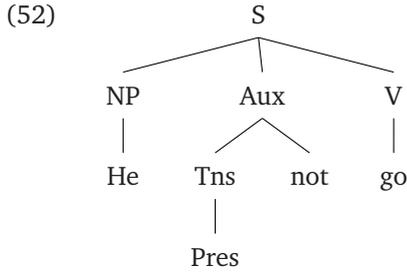
He	will	not	go
S	M		V
Actor	Modality		Process
	Mood	Negative	

(49b) 의 긍정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51)



위의 수형도에서 Pres 는 접사로 반드시 어휘적 요소와 나타나야 하므로 V 인 go 와 결합한다. 그런데 부정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형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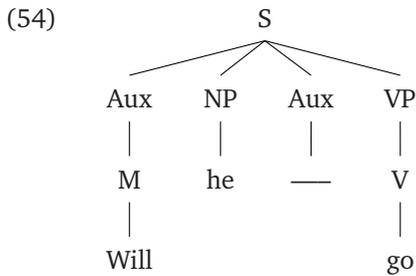


위의 수형도에서 문제는 not 때문에 접사인 Pres가 어휘적 요소인 go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는 동사인 do를 삽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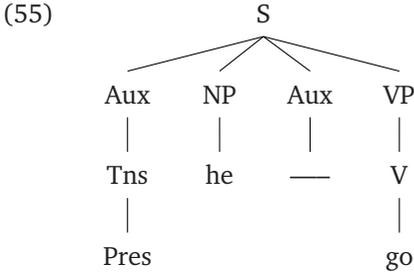
의문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53) a. Will he go?
 b. Does he go?

(53a)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53b)의 경우 조동사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평서문에서는 Pres 가 go 와 인접하여 두 요소가 결합될 수 있으나 의문문에서는 주어-동사 도치에 의해 일종의 조동사인 Tns 가 주어 앞으로 이동되었다. 이에 따라 Pres 가 go 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어휘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조동사 do 가 삽입된다.

8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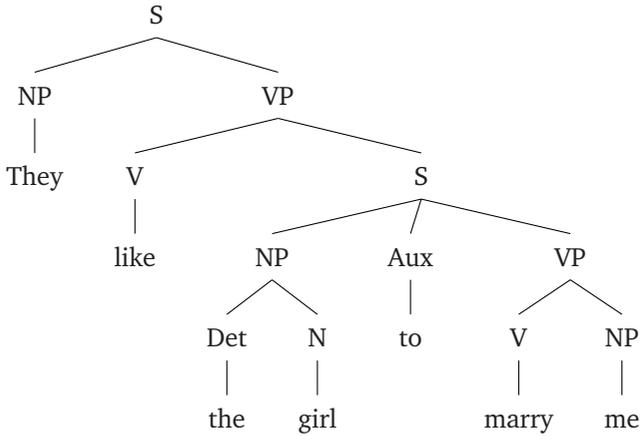
조동사의 순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구구조규칙을 통해 동사류의 순서를 기술할 수는 있지만, 접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기술하기가 어렵다. 구구조규칙에 의해 조동사와 본동사를 접사를 도입하고, 접사떨기를 적용함으로써 조동사의 적절한 어순과 적절한 형태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부록 A 연습문제

부록 B 연습문제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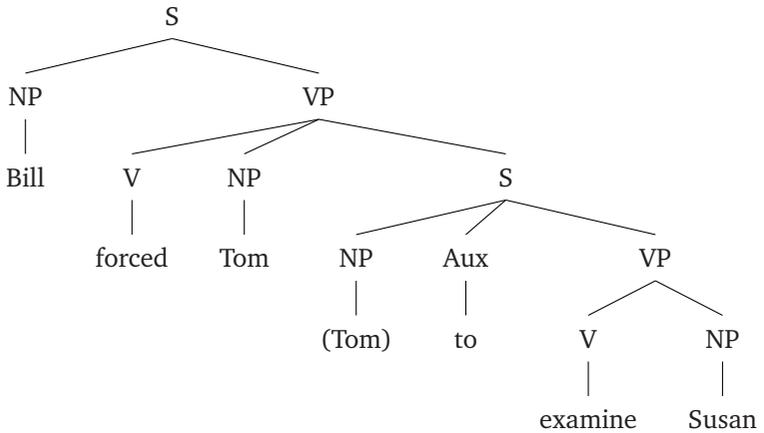
제 6 장 타동사

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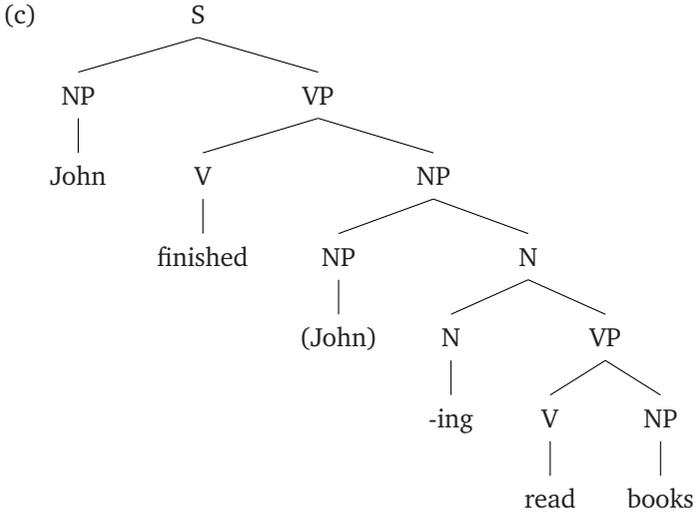


They	like	the girl to marry me
S	V	O
Experiencer	Process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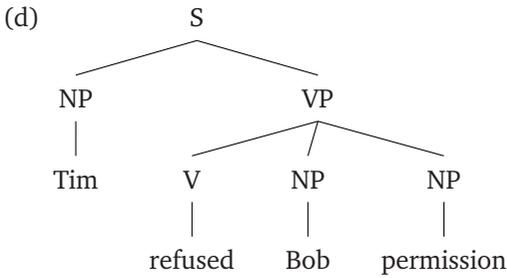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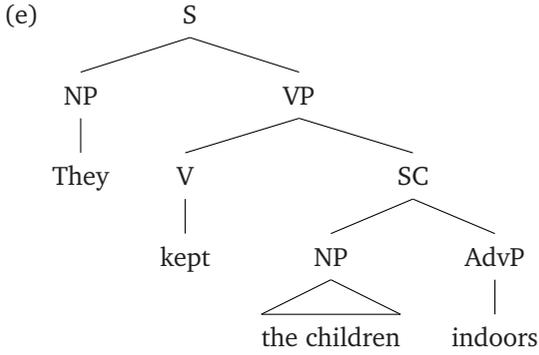
Bill	forced	Tom	(Tom) to examine Susan
S	V	IO	DO
Source	Process	Recipient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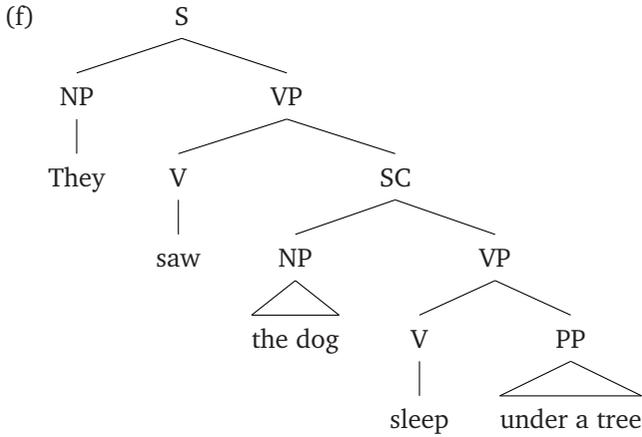
John	finished	(John) reading books
S	V	O
Experiencer	Process	Goal



Tim	refused	Bob	permission
S	V	IO	DO
Source	Process	Recipient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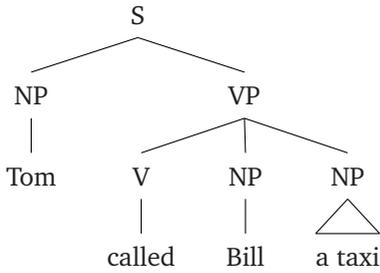


They	kept	the children	indoors
S	V	O	
		S	A
Experiencer	Process	Fact	
		Existent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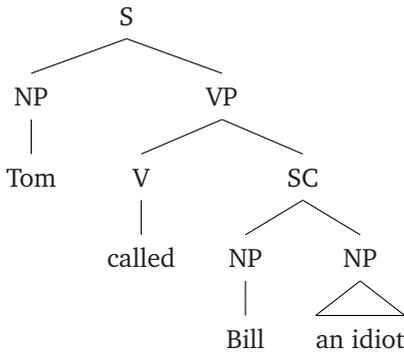


They	saw	the dog	sleep	under a tree
S	V	O		
		S	V	Adjunct
Experiencer	Process	Goal		
		Actor	Process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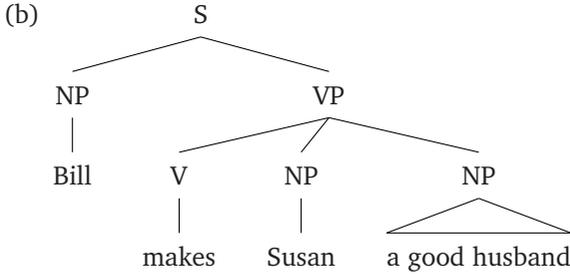
2.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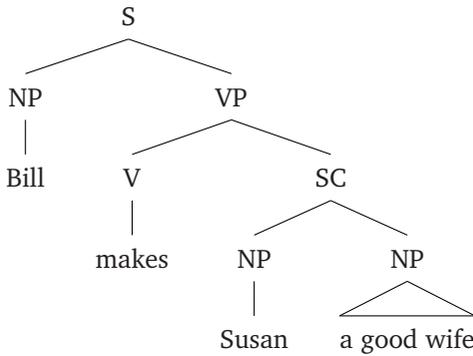
Tom	called	Bill	a taxi
S	V	IO	DO
Actor	Process	Beneficiary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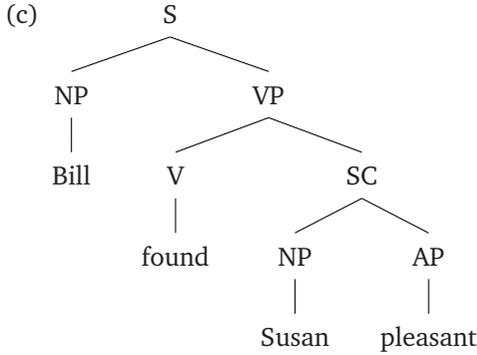
Tom	called	Bill	an idiot
S	V	O	
		S	C
Actor	Process	Fact	
		Carrier	Attrib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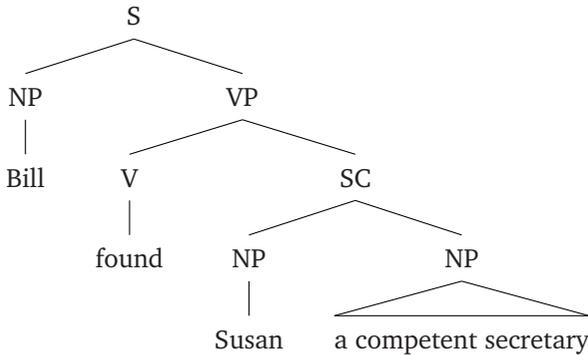
Bill	makes	Susan	a good husband
S	V	IO	DO
Actor	Process	Beneficiary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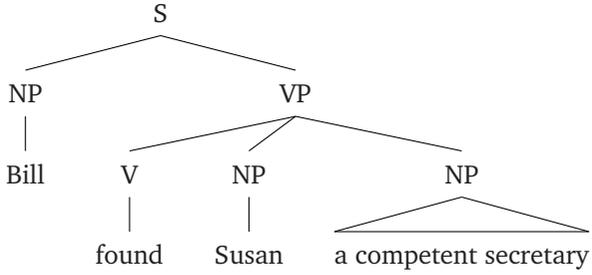
Bill	makes	Susan	a good wife
S	V	O	
		S	C
Experiencer	Process	Fact	
		Carrier	Attribute



Bill	found	Susan	pleasant
S	V	O	
		S	C
Experiencer	Process	Fact	
		Carrier	Attribute



Bill	found	Susan	a competent secretary
S	V	O	
		S	C
Experiencer	Process	Fact	
		Carrier	Attribute



Bill	found	Susan	a competent secretary
S	V	IO	DO
Actor	Process	Recipient	Goal

참고 문헌

- [1] 김경학. 1999. 영어구문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만남.
- [2] 나병모. 1994. 영어통사론. 서울: 도서출판 글.
- [3] 나병모. 2001. 영어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 동인.
- [4] 나병모, 양만섭 공역. 1996. 언어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 [5] 손장진 역. 1997. 통사론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 [6] 윤만근. 1991. 영어통사론 1. 서울: 형설출판사.
- [7] 정동빈. 1991. 영어학: 그 역사, 이론과 응용. 서울: 한신문화사.
- [8] 조성식 역. 1981. 영어의 구조. 신아사.
- [9] Akmajian, A. and F.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10] Baker, C. 1978. *Introduction to Generative-Transformational Syntax*.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1] Culicover, P. 1982.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12] Downing, A. and P. Locke. 1992. *A University Course in English Grammar*. New York: Prentice Hall.
- [13]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1-88.
- [14] Fries, C. 1952.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15] Halliday, M.A.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Victoria, Australia: Edward Arnold.
- [16] Hornby, A.S. 1976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7] Huddleston, R. 1976. *An Introduction to English Transformational Syntax*. New York: Longman.
- [18] Jacobsen, B. 1977.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 [19]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20] Jespersen, O. 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21] Kaplan, J. 1989. *English Gramma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22] Liles, B. 1975.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23] Quirk, R and S. Greenbaum. 199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27th edition. Hong Kong: Longman.
- [24]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 [25] Radford, A.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6] Stageberg, N. 1971.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2nd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27] Swan, M. 1980. *Practical English Us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